괴테클럽 독서 감상문

작성자	김승혁	**토론일**	’22.07.01
도서명	좀머씨 이야기	**저자**	파트릭 쥐스킨트
별점	4.5/5		
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성장 소설이라 세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겉도는 점이 아쉬웠다.		
한줄평	성장 소설을 가장해 사회의 아픈 곳을 나타내는 작품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제발 나를 좀 그냥 놔두시오!

감상

‘좀머씨 이야기’는 성장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용도 다른 성장 소설과 공통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이 작품은 성장 소설의 형식을 빌려 전후 독일의 사회문제와 도시의 문제들을 고발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았다. 좀머씨는 주인공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루 종일 걷는 일만 하는 괴짜이다. 좀머씨를 통하여 현대 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간 소외와 소외한 사람을 다루는 마을의 다른 사람들의 대응을 보여주면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 같다. 여기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좀머씨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인간 소외보다 더 고차원적인 전후 독일 사회의 문제인 잔존 나치의 문제와 이를 대하는 독일 사람들의 시선을 제시한다고 보고 좀머씨를 나치라고 생각한다. 좀머씨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치 군인임을 책에선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좀머씨가 하루 종일 걷는 것은 자신이 전쟁 중 저질렀던 죄를 참회하는 방법이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만 휴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 좀머씨 개인의 죄는 이렇게 참회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좀머씨는 하루 종일 걸으며 자신의 자취를 온 마을에 남겼지만 사람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 좀머씨가 없어졌음에도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다음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와 그 일을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 여기서 전후 나치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치라는 꼬리표는 항상 그들 옆에 있었지만 그들은 애써 무시했다. 후에도 이들은 언급하기도 꺼릴 정도가 된다. 작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전후와 현재 독일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항상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반성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